

400점 만점 기록에 '환호성'

전주만수초 반딧불 학생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 전국대회서 1위 차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진흥원이 주관한 제34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KOI:Korea Olympiad in Informatics) 경시부문 전국대회에서 전주만수초등학교 6학년 반딧불 학생이 초등부 전체 1위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달 22일 경북 경산시 소재 경일대학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5천여명의 응시생 가운데 17개 광역시·도 지역 예선대회를 통과한 초·중·고교생 총 6백여명이 참가하여 컴퓨터 알고리즘 구현능력에 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4시간 동안 4문제를 해결하는 본선에서 반딧불 학생은 1시간25분 만에 4문제를 모두 풀이했으며 실시간으로 접수

를 전광판을 통해 지켜보던 참석자들은 초중고를 통틀어 몇 년만의 만점자 탄생에 환호했다.

전라북도에는 초·중·고에서 모두 26명이 참가하여 반딧불 학생 외에도 주정연(전주한솔초 6)학생과 송재현(한국계인과학고 3) 학생이 은상을 수상했으며 동상 4명, 장려상 13명 등 총 20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정보올림피아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초중고생이 참가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대회로 전국의 초중고 차세대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컴퓨팅사고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 분야 경시대회다.

이번 대회 초등부 대상을 받은 반딧불 학생은 3학년 때부터 전북교육연구정보원 부설 정보영재교육원(원장 차상철)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으며 한국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출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교육을 통해 알고리즘 세계에 입문했다.

4학년 때 첫 출전한 대회에서 1~3등에게 주는 금상 권에 들었으나 동점자 처리에서 아쉽게 밀렸다. 이후에도 계속 정보영재교육원에 다니면서 알고리즘을 독학한 반 군은 올 4월 예선대회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반 군은 이번 본선 직전에 1달여 동안의 알고리즘 특강 외엔 지난 3년간 동안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왔다.

정보올림피아드 역대 대회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한 것은 전북교육연구정보원 부설 정보영재교육원 개원 이래 처음이다.

정보영재교육원은 2009년 개원 이래 정보역량 시대에 대비한 최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정보 꿈나무들에게 정보과학적 마인드를 형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정읍시 신태인파출소, 어르신 교통사고예방 교육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 신태인파출소(소장 권기홍)는 2일 신태인 북부노인복지관,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상대로 교통사고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



최근 오토바이·전동휠체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륜차, 사발이, 자전거, 전동휠체어 운전자 대상 경찰서장 서한문을 직접 전달하며 1:1 홍보를 실시했다. 교육은 오토바이 인명보호 장구 착용 생활화와 전동휠체어 운행 시 주의할 점 등 노인층에 맞게 실시하며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권기홍 소장은 "앞으로도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태환 기자

익산경찰서, 치안종합성과·체감안전도 향상 보고회의 개최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는 2일 오전 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경찰서장 주재 하에 각 과·계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종합성과 및 체감안전도 향상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치안종합성과평가 중간평가 및 상반기 성과 향상방안에 대한 논의도 가졌으며,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범죄 안전도, 교통사고 안전도, 법질서 준수도 등 체감안전도 향상 방안에 대한 대책 발표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상주 서장은 "성과를 위한 활동이 아닌 주민이 피부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능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감받는 익산경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경찰서, 인권구현 현장 간담회 가저

군산경찰서(서장 최원석)는 2일 오전 지역경찰 등 현장 대민접촉 부서를 찾아 인권구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적법절차의 중요성, 인권 지향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날 수송파출소를 찾은 홍정기 청문감사관은 "경찰의 인권의식이 쟁점화되는 시점에서 비판적 시선을 개선하고, 경찰관 개인의 인권의식을 전환하여 업무에 보다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걸맞는 선진 인권의식을 갖추자"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 진정 사례, 외국과 한국 경찰의 현 모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군산경찰은 인권경찰을 지향하기 위한 내부 공감대를 조성하는 한편, 경찰관들의 사기와 자존감을 제고할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장현 기자

완산서 삼천지구대, 성희롱예방 교육·자유 토론회 열어

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는 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양성 평등 의식변화라는 주제로 성희롱예방 교육 및 자유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고위 공직자의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성범죄 단속기관으로서 성 윤리의식 제고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과 성매매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희롱예방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잘못된 통념과 그 심각성을 알아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유발언을 통한 토론을 했다.

또한 직장 내 가벼운 성적 농담,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이호봉 삼천지구대장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간 서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백제라이온스, 사랑의 집짓기 2호점 착공식

백제라이온스는 무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익산시 석왕동에 거주하는 김한수(66.가명)씨 가정에 멋진 집을 지어 주기 위해 사랑의 집짓기 2호점 착공식을 갖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씨는 중증장애인으로 부인, 노모, 장애인 자녀 등 3대가 함께 모여거주하고 있으며, 욕실도 없고, 천막을 치고 있어야 하며, 부엌과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매우 낡고 위험한 상태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이 가정의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고 백제라이온스 클럽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8월 2일 사랑의 집짓기 2호점 착공식을 하게 되었다.

백제라이온스 클럽은 2015년 춘포면에서 사랑의 집짓기 1호점을 시작으로 집수리 사업, 자원봉사센터 해외봉사기금 지원, 다문화 체육대회, 연탄 봉사, 해외 봉사 지원까지 세계를 아우르는 끊임없는 봉사와 실천으로 건강한 지역사회공공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익산=장왕원 기자

한전 남전주지사, 평화2동 주민센터 방문 선풍기 20대 기탁

한국전력 남전주지사는 2일 완산구 평화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풍기 20대를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선풍기는 평화2동 관내 경로당과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전력 남전주지사 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기부금으로 모금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기부와 후원활동으로 지역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있다.

최성인 평화2동장은 "한국전력 남전주지사 직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사랑을 관내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기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심미혜 신임 전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취임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선재)는 2일 전북도청에서 제10대 전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김종철, 한완수, 최영원, 송성환 도의원과 도내 15개 의용소방대 연합회 남·녀회장 및 각 지역 의용소방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임하는 제9대 채진자 여성회장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10대 심미혜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심미혜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임기동안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발전과 화합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웃사랑을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하겠다"고 말했으며 "특히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성·이삼민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960-912 전주구 영신구 기린대로 222-4호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 010-985-4113	중앙지사 010-93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사 010-985-935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4살 소녀들

수업내용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는 학생들

복합산 고교 100주년

지난 4월 전주 우원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래문화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